

비열한 방법이었으나 야당과 양민은 속수무책이었다. 전선에서는 무고한 젊은이가 국가를 막아지킨다고 처절히 죽어가는데 후방의 정권은 장기집권을 위해 가리는 바가 없었다. 국회에서는 야당이 독재정권의 장기집권을 막고자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내고 정부는 부결된 안을 수정한 개정안을 다시 제출해 정면 대결했다. 이런 가운데 5월 10일에 치른 지방의원 선거에서는 이승만의 자유당 계열이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이들은 곧 국회에 대한 반대세력이 되어, 국회 해산과 국회의원 소환을 부르짖으며 난동하는 백골단·땃벌대·민족자결단 등 폭력배와 협응이 되었다. 그런 가운데 1952년 5월 24일의 계엄령선포와 26일의 국회의원 통근차 납치 사건이 자행되고 거기에서 12명의 국회의원이 국제공산당과 결탁하였다는 혐의로 구속되었으며, 이들을 석방하라는 국회의 결의는 묵살되었다. 이로부터 사태는 장기화되고 국회는 휴회를 거듭했는데 6월 20일이 되어 이시영李始榮·김성수金性洙·장면張勉·조병옥趙炳玉 등 60여인 국회의원이 반독재호헌구국선언反獨裁護憲救國宣言을 하려다가 괴한들의 습격을 받아 유혈 속에 중지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술수에 능한 국무총리 장택상張澤相이 이승만과 국회 사이의 중재에 나서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양원제의 정부안을 뼈대로 하고 국회에는 내각제 요소를 다소 수용하여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권 및 국무총리 인준권 등을 주어 조정한 이른바 ‘발췌개헌안拔萃改憲案’을 만들어 국회에 상정케 하고, 7월 4일 경찰에 포위된 국회에서 밤 9시에 기립표결起立表決의 방식으로 이를 통과시키고 이로써 정치파동을 일단락시켰다. 어쨌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것이 대한민국헌법의 제1차 개정이고 이렇게 발췌개정된 헌법은 1952년 7월 7일 공포되면서 부산·경남과 전라지

역에 내려 있던 비상계엄령도 해제되었다. 그 다음 1954년 11월에 강행된 자유당정권의 사사오입개헌과 1958년 12월에 발생한 이사파동二四波動까지를 합쳐 광의의 정치파동이라 하는데 이는 이승만독재의 종신집권을 위한 것이었다. 어쨌든 국회의원이 탄 통근차가 헌병대에 납치된 무렵의 이승만 대통령측이나 민주국민당은 각자가 제출한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한 사람의 국회의원이자도 자기 쪽으로 확보하기 위한 유치활동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었다. 이때 김시현은 국회의원으로서 막 민주국민당을 탈당한 상태에 있었다. 그러한 그가 민주국민당의 중진인 서상일徐相日에게 급히 쓸 일이 있다면서 돈을 요구했고 서상일은 개헌안 지지표 확보를 위해 쓸 공작금 중에서 2백만 원을 제공했다. 서상일은 진실로 그 지지표 확보를 위해 거금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 민주국민당으로서 재적 국회의원의 구성으로 볼 때 이승만의 직선제 개헌안은 찬성자로 70표 정도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반면에 민주국민당 소속 국회의원도 40명에 불과하여 직선제 개헌안 저지에 필요한 정족수를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70표에서 80표를 확보하면 저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므로 방금 탈당하여 무소속이 된 김시현 같은 국회의원은 중요한 포섭의 대상임이 물론이었다. 그렇더라도 당시로서 상당히 큰 금액인 2백만 원을 단순 득표공작을 위한 포섭용으로 제공한 것은 아닐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하여 거사 자금을 손에 넣은 김시현은 인천으로 가 전일의 의열단義烈團 동지이던 최양옥崔養玉을 만났다. 대구로 가서는 같은 의열단원으로 서 전일에 옥고도 같이 치렀던 유시태柳時泰를 만나고 동래東萊에 가서는 온천지에서 정양하고 있는 이시영李始榮을 만

나고는 다시 진해鎭海로 가 오랜 동지 방주혁方周赫을 만났다. 독재자 이승만을 제거하는 거사를 위해서였다. 동족상잔同族相殘의 미친 전쟁으로 강산에는 남는 게 없고 백성은 도탄塗炭에 빠진 가운데 양민이 까닭도 모르며 죽어간다. 그러면서 유치장과 감옥은 초만원을 이루는데 독재집권의 연장에 혈안인 대통령·국무총리·내무장관 등은 각양의 흉계를 꾸미기에 여념이 없다는 게 김시현의 시각이었다. 이 모든 게 이승만 한몸에 모여 있기 때문에 그를 제거해야 나라와 백성이 산다. 이같은 결의로 김시현은 부산시중에서는 김성수金性洙·신용순申容純 등을 만나 상의하고 조병옥趙炳玉·서상일·백남훈白南薰 등과도 필요한대로 상의하였다. 그러면서 거사가 실패했을 경우 민주국민당에 누를 끼치지 않고자 탈당하여 무소속이 되었다. 그러나 국회에는 열심히 나가는 척했다. 본디 과격혁명투사로서 의회주의자가 아닌 김시현으로서는 국회에 가득한 정상배의 언행이 가관이어서 문득 폭탄이라도 하나 던져 몰살해 버리거나 크게 경종이라도 울리고 싶은 심경이었다. 그러나 이를 그저 부질없이 듣고만 있으며 빙그레 웃는 것이 그 평상이었다. 김시현의 이때 구상은 그러한 국회에서 내각책임제 개헌에 찬성하여 그 추진에 동참하는 123명 국회의원의 결속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원외院外에서는 이승만 1인을 제거하고, 원내에서는 내각책임제 실시를 전제로 사육이 없는 노애국자 이시영을 새 대통령으로 선출한다. 애국애족심이 지순至淳한 것으로 자타가 믿는 이시영의 손으로 선임된 각료진으로 새 정권을 세우고 그 정권이 충분히 연구검토한 내각책임제 개정헌법안을 기초하여 공청公聽과 토론회를 거쳐 재심하고 통과 실시하는 일종의 과도정부過渡政府를 맡게 한다. 이러한 구상의 실현을

위해 김시현은 동분서주하며 거사를 꾸몄다. 거사의 핵심은 유시태였다. 유시태는 김시현과 동향 안동 출신이고 호를 후암后菴이라 쓰는 하회河回의 풍산유씨豊山柳氏로서 7세가 연하였다. 3·1운동 때부터 서산과 당진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시작해 7년과 1년 두 차례 옥고를 치르며 의열단원으로 투쟁해왔는데 해방후에는 대개의 의열단원이 그렇듯이 별다른 활동을 아니하고 대구에서 약국을 열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유시태와 만나 김시현은 늦도록 술잔을 기울였다. “후암, 한 잔 더 들게나.” “이거 너무 먹으면 안되는데.” “그러니 한 잔만 더 하래지 않는가.” “그러면 하구께서도 한 잔 더 하시오.” “아, 그야 물론이지.”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술잔을 교환하여 거의 만취상태에 이르러 유시태가 새삼스레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그저 두고는 안되겠지요?” “그러게 말이야. 하긴 맹자孟子도 불위살인자왕不爲殺人者王이라 하였으니, 불문곡직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야. 그러나 저 사람을 그대로 두어서는 수많은 백성과 애국자가 도륙이 되니 말이야.” “이 사람 저 사람 제 적수가 될만하면 다 죽이고 권좌에 올라서는 이제는 그걸 종신토록 누리자고 못하는 것이 없을 테면 그게 걸주桀紂나 다를 게 없지요.” “모두가 설한대륙雪寒大陸에서 풍찬노숙風餐露宿할 제 혼자 미주에서 동포가 근근이 모아주는 돈으로 고고히 지내다 서양녀 벽안미인碧眼美人이나 께차고 돌아온 그가 대관절 애국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 폐일언하고 이번에 그도 제 목숨을 한번 내놓아 비로소 타의로나마 애국의 희

생을 하게 해야지.” “저를 그대로 두고는 나라를 구할 수 없으니 달리 생각 말고 결의한대로 실행하세.” “물론 결행해야지 두말이 필요 있겠소. 그런데 기체가 잘들을지 모르겠네요. 시험해 보지는 않았지요?” “글쎄 말이야. 탄환이 전부네 개 뿐이니 시험이고 무엇이고 해볼 수가 있어야지. 한두방에 반드시 엎어진다고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엎어진다손치더라도 저들 주구배走狗輩가 총을 빼들고 덤벼들테니 역시 탄환 몇 개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해서 말이야.” “하긴 그렇지요.” 김시현이 구처하여 유시태에게 넘겨준 러시아제 권총은 좀 오래된 것이고 실탄은 달랑 네 발이 달려 있었다. 그것도 김시현이 동분서주하여 어렵게 구한 것이었다. 유시태는 그게 오래 쓰지 않은 것이어서 발사가 제대로 될 것인지 미심쩍었다. 그런 유시태가 다시 김시현에게 다짐하듯 물었다. “그런데 내일 자리에 꼭 나오기는 하겠지요?” “프로그램에 들어 있으니 꼭 나오겠지.” 다음날 오전의 6·25사변 2주년 기념식장에 이승만 대통령이 참석하느냐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되도록 남보다 먼저 도착해서 연단 바로 뒤쪽에 가까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그럼, 그래야 하고말고.” 부산 영도 봉래동의 한 주점에서 김시현과 유시태가 만나 술에 취하며 요담을 나누고 헤어진 것은 1952년 6월 24일 저녁이었다. 영도다리를 건너 부산 중심가의 숙소로 돌아온 김시현은 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들지 못했다. 이번에 자기의 현기玄機가 그대로 맞기만 하면 조국은 가난과 공포와 유혈의 참극에서 벗어날 기틀을 마련케 된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다.

주문떡전문
身土不二떡방앗간

학교 및 단체 급식
백일·잔치·고사·폐
백떡·고추방아
대표 權裕和

안동권씨서울북부화수회 부회장

방앗간:서울 강북구 수유5동
조병옥선생 묘소입구
전화 02)991-3334·야간
02)907-6657
휴대전화 016-754-6657
주문에 출장 배달합니다.



근기요산회 4월 특별산행 안내

안동권씨근기요산회近畿樂山會의 4월 정례산행을 겸한 특별행사를 아래와 같이 행하오니 많은 회원의 참여 바랍니다. 항상 가족 동반을 환영합니다.

일 시 : 2009년 4월 18일(세번째 토요일) 오전 8시 30분
집결장소 :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8번출구(세종문화회관 뒤) 전세버스 대기처
여행목적지 : 충남 보령시 청소면 오서산 및 보령시 내향동 대천항.
등산 및 회식 행정 : 청소면 성연리에서 진위봉·송신소·오서산 등산 후 대천항으로 이동하여 횃집에서 회식후 귀경.
준비물 : 등산복·등산화 착용 및 선택적 이동식.
연락처 : 권병일 총무 011-289-1747
권기윤 010-728-3608

안동권씨근기요산회장 權寧翼